

# 일본어 가타카나 표기에 관한 일고찰

李京珪\*·徐珍榮\*\*

## 目次

1. 들어가며
2. 가타카나 표기어의 어종별 분류 및 검토
3. 외래어의 가타카나 표기에 대한 품사상의 특징
4. 나오며

## 1. 들어가며

현대 일본어의 일반적인 한자·히라가나 혼용문에서는 가타카나는 외래어나 외국의 인명·지명, 의성어, 의태어 등에 쓰이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현대 일본신문이나 잡지에서는 공용문 등에 관해서 규정되어 있는 용법을 뛰어넘는 다채로운 가타카나 사용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표기 현상이 현대 일본어 표기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sup>1)</sup>

土屋信一の 연구에서는 社内用の「表記の手引き」와 「表記の基準」을 검토하여 신문이나 교과서에서는 외래어, 외국의 인명·지명, 동식물명 외에 의성어·의태어, 감동사, 속어·은어, 학술용어 등에 관해서도 가타카나 사용을 전제로 한 상세한 규정이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신문의 가타카나 표기어를 분석하여 위의 규정을 확대한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가타카나에 특수한 뉘앙스를 부여한 것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sup>2)</sup> 또한

\* 東義大學校 助教授 日本語學

\*\* 東義大學校 大學院 博士課程

1) 土屋信一(1977)「現代新聞の片仮名表記」『電子計算機による國語研究VIII』國立國語研究所研究報告。

p.112

野村雅昭(1981)「週刊誌のカタカナ表記語」『馬淵和夫博士退官記念 國語學論集』大修館書店。

pp.847-866

佐竹秀雄(1989)「若者の文章とカタカナ効果」『日本語學』1月号, pp.60-67

2) 土屋信一(1977)「現代新聞の片仮名表記」『電子計算機による國語研究VIII』國立國語研究所研究報告。

p.112

이와 같은 다채로운 가타카나의 사용이 명치초기의 신문에도 나타나며, 에도시대의 劇作에 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됨을 밝히고 있다.<sup>3)</sup>

이에 대하여, 野村雅昭의 연구에서는 주간지의 조사를 토대로 하여 고유어(和語)와 漢語가 가타카나 표기된 것을 분석한 것으로, 가타카나 표기어의 사용 상황과 그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sup>4)</sup> 이러한 가타카나 표기어는 여성 주간지와 청소년 잡지에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이들 독자층이 구어체 문장을 지향(志向)하고 있으며, 한자에 의존하지 않으려는 문자 표기상의 하나의 흐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相澤尙美의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가타카나가 한자의 보조적인 역할이나, 외국의 인명·지명, 의성어, 의태어를 표기하던 것이 역할의 전부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시대를 반영하는 유행어나, 한자 그리고 히라가나로 충분히 표기가 가능한 경우에도 가타카나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sup>5)</sup>

佐竹秀雄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잡지의 투고문을 토대로 하여, 외래어 이외의 표기로서 가타카나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분석한 흥미로운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sup>6)</sup> 이 연구에서는 일본 젊은이의 문장에 나타나는 가타카나 사용의 근본에는 작자 자신이 생각하는 미묘한 뉘앙스를 담은 감각적인 표현을 비표준 표기의 한 형식으로서 나타내려는 의식이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면서 일본의 대표적인 여성 주간지인 『non·no』<sup>7)</sup>에 나타나는 가타카나 표기의 용례를 추출하여, 이들 가타카나 표기가 가지는 의미기능에 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필자가 『non·no』를 텍스트로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1971년 5월 창간된 이래 현재까지 여성주간지 중에서 판매부수가 가장 많다.
- (2) 유행을 주도하고 새로운 언어생활을 창조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10-20대의 독자층을 갖고 있다.<sup>8)</sup>

3) 土屋信一(1980)『浮世風呂』の片仮名表記語』『近代語研究』第6集。p.232

4) 野村雅昭(1981)『週刊誌のカタカナ表記語』『馬淵和夫博士退官記念 國語學論集』大修館書店。pp.847-866. 野村는 가타카나 표기어의 존재이유에 대해 「(1) 文章の話しことば的な特徴をいかに。(2) 單語に特殊な意味や語感を持たせる。(3) 連續のなかで語句のきれめを表示する役割を果たす。」로 요약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p.860

5) 相澤尙美(1985)『現代におけるカタカナの使用状況 -『フォーカス』を資料として-』『日本文學ノート』第20号。pp.103-116

6) 佐竹秀雄(1989)『若者の文章とカタカナ効果』『日本語學』1月号。pp.60-67. 佐竹는 청소년층의 문장에 나타나는 가타카나 쓰임의 특징으로서 「(1) 感情や評価を表わす場合、(2) 話しことばふうの表現を表わす場合、(3) その他(日常的な漢語)」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p.64

7) 『non·no』는 1971년 5월에 창간하여 월 2회 발행하며, 10대 후반에서 20대의 여성을 독자층으로 하는 토달 페션지이다. 『non·no』의 용례조사에 있어서는 1994년 3월 20일 발행분과 2004년 3월 20일 발행분을 텍스트로 사용하였다.

- (3) 여성잡지의 특성상 패션용어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독자 투고란 등에 나타나는 다양한 가타카나 사용의 예문을 추출할 수 있다.

## 2. 가타카나 표기어의 어종별 분류 및 검토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가타카나 표기에 관련된 연구는 주로 일본어 교육의 측면에서 오류 분석이나 일본어 교과서 어휘 분석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대 일본의 청소년을 독자층으로 하는 잡지에 사용되는 가타카나 쓰임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관점을 달리 하며,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가 현대 일본어에 있어서의 가타카나의 쓰임의 체계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선, 『non·no』에 나타나는 가타카나 표기의 용례를 어종별로 나누어 그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 2-1. 外來語

- (1) シンプルでベーシックな着こなし。(1994. p8)
- (2) ロマンチックな印象のニット。(1994. p13)
- (3) こんな時代だから、のトレンドィー&ユニークなバイトは、これ! (1994. p90)
- (4) ロングスカートと短か丈のベストってバランス的にすごくマッチする。(1994. p20)
- (5) 手輕な具をマスタしよう! (1994. p136)
- (6) レシーブするなら回轉レシーブ。(2004. p136)
- (7) ウエスト部分の折り返しなどデザイン性の強いもの。(2004. p201)

위의 예문(1)~(7)은 「simple」「basic」「romantic」「knit」등의 외래어를 가타카나로 표기한 경우로 가타카나 표기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예문(1)의 「ベーシックな」, 예문(2)의 「ロマンチックな」, 예문(3)의 「ユニークな」는 原語가 형용사인 경우로 외래어로서 일본어에 들어와서도 품사성이 바뀌지 않고, 이들 어간

8) 『non·no』의 독자층 분포는 다음과 같다. (2001년 5월 『non·no』창간 30주년 기념 集英社 발표)

독자층	대학(원)생	직장여성	고교생	기 타
비율(%)	30%	40%	20%	10%

독자층	대학(원)생	직장여성	고교생	기 타
비율(%)	30%	40%	20%	10%

형태에 연체수식 어미 「-な」가 붙어 형용동사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예문(4)의 「マッチする」, 예문(5)의 「マスタする」, 예문(6)의 「レシーブする」는 「動詞性」을 가진 외래어+する」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動詞性」을 가진 漢語+する」형태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sup>9)</sup>

예문(4)의 「バランス的」는 명사인 「バランス」에 「-的」가 붙어 형용사적인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경우이며, 예문(7)의 「デザイン性」도 동사나 형용사의 성질을 가진 것에 「-性」가 붙어 명사성으로 전환되는 경우이다.<sup>10)</sup>

다음의 예를 보기로 한다.

(8) わたしのホームタウンはシアトルよ、と猫が言った。(2004. p102)

(9) パリ、ミラノのローファー。(1994. p64)

(10) テキサ스州出身のライルと、ジョージア州で育ったジュリアはアメリカ南部人そのもの。  
(1994. p187)

예문(8)~(10)은 외국의 지명과 인명의 가타카나 표기로 예문(1)~(7)의 경우가 외래어의 일반 어휘라고 한다면, 예문(8)~(10)은 고유명사로 가타카나 표기 이전까지는 주로 한자표기를 했던 예이다.<sup>11)</sup>

## 2-2. 固有語(和語)

### 2-2-1. 의성어·의태어, 부사의 경우

(11) パステルからのコディネートは、着ているだけで心をウキウキさせてくれるようだ。(1994. p23)

(12) キラキラ光る、お星様をかたどったべんだんと。(1994. p74)

(13) 10分だと彼はあなたの歸りを待ってグズグズしている。(2004. p97)

(14) かしたセラチンを、熱いうちにシャカシャカと泡立てて、フワフワにしあげました。(2004. p202)

(15) 縦ラインの効果でホッソリ見える。(1994. p44)

(16) 스카트가보リュームある分、足もともガッシリ靴で受け止めないとバランスNGになるか

9) 影山太郎(1993)『文法と語構成』ひつじ書房. pp.255-321. 影山는 同書에서「動名詞+する」型の複合語」라고命名하고 있다.

10) 原 由起子(1986)「-的」『日本語學』3月号、明治書院. pp.73-80

荒川清秀(1986)「-性 · -式 · -風」『日本語學』3月号、明治書院. pp.85-91

11) 가타카나 표기 이전에 「パリ」를 「巴里」, 「アメリカ」를 「亞米利加」로 한자 표기했던 시기를 의미한다.

ら注意。(2004. p66)

(17) 体重も減って全身スッキリ! (2004. p154)

위의 예문(11)~(14)는 고유어 중에서도 의성어·의태어를 표기한 것이며, 예문(15)~(17)은 부사를 가타카나로 표기한 경우이다. 이들 의성어와 의태어, 부사의 경우는 대부분이 사물의 이미지와 느낌에 관련된 단어로, 이들 단어의 가타카나 표기를 통해서 문장 안에서 좀 더 감각적으로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가타카나 표기가 시작되어 일반화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 2-2-2. 감동사의 경우

(18) ファクスもコピーもできるのがいいネ。(1994. p221)

(19) イラストまで載っちゃうゾ。(1994. p221)

(20) ウ〜ンうらやましすぎる! (2004. p88)

(21) そうすると、アレ? どっかでこの話し聞いたことがあるって思うことがよくある。(2004. p96)

예문(18)~(21)은 감동사의 가타카나 표기의 경우인데, 이 역시 작자의 감정 표현과 의사 전달의 극대화를 위해 가타카나 표기를 사용한 예이다.

### 2-2-3. 명사의 경우

(22) 少し大きめのヘチマカラーの衿が微妙に重なっているが、おしゃれ。(1994. p25)

(23) 同じ分量ずつさりげなく出したインナーがおしゃれ。(2004. p167)

(24) 春になったんだもん、やっぱり新しい服でオシャレしたい! (1994. p6)

(25) 毎日オシャレに過ごせるよ! (2004. p28)

예문(22)(23)는 히라가나 표기인데 반해, 예문(24)(25)은 가타카나 표기의 경우이다. 예문(24)(25)의 경우에 히라가나 표기가 아닌 가타카나 표기를 한 것은 가타카나 표기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부각시켜 강조 효과를 얻고자 한데서 다분히 의도적인 표기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명사의 가타카나 표기를 통한 강조 효과는 다음의 예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6) このLOVEポイントがおしゃれのツボ。(1994. P26)

(27) タテ・ヨコ・ナナメ、上下・左右どちらからでも読むことができます。(2004. p226)

(28) 上手へタより描くことが大切。(2004, p298)

예문(26)에서 「おしゃれ」를 「ツボ」와 같이 가타카나로 표기하지 않고 일반적인 표기 형태인 히라가나 표기한 것은 뒤에 오는 「ツボ」를 시각적으로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예문(27)의 경우에는 「タテ・ヨコ・ナナメ」만을 가타카나 표기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 시각적으로 독자층에게 강조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하여 예문(28)의 경우는 「上手」와 「下手」 공히 한자표기가 일반적인데도 불구하고, 「へタ」만을 가타카나 표기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한 표현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작자의 의도적인 표기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패션잡지의 특징상 신체부위를 나타내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가타카나 표기된 경우의 예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29) 今週は精神的に弱っていて、食事もありノドを通らず、すこしやせたように思う。(2004, p157)

(30) 背中のニキビ、カサつくヒジ・ヒザをすべすべにするトリートメント。(2004, p238)

(31) 兩ワキ・兩アシ・兩ウデ。(2004, p247)

예문(29)~(31)의 경우, 히라가나 표기(のど・ひじ・ひざ・わき・あし・うで)나 한자 표기(喉・肘・膝・脇・足・腕)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가타카나 표기를 한 것은 이들 신체부위를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자 한 점과 독자층에게는 어려운 한자라는 점이 함께 고려되지 않았나 생각되는 예이다.

#### 2-2-4. 형용사의 경우

(32) さらにお手ごろなお値段はエライ。(1994, p68)

(33) ひえ~ 私もアブナイ、休みたい、だ~ (1994, p207)

(34) 「ノンノ見たでー」がウレシイ。(1994, p220)

(35) 中にはがはずれてアツくなってる人も多いのだ。(2004, p90)

(36) 鏡の前で歩いたり、ひざを曲げたりして、キツさやシワをチェック。(1994, p43)

(37) 初日はけっこうキツくて、その後、筋肉痛になってしまったよー。(2004, p157)

예문(32)~(34)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형용사의 원형인 경우에는 어간과 어미 모두가 가타카나로 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예문(35)~(37)과 같이 어미의 활용이 있는 경우에는 어간 부분만을 가타카나 표기하고, 어미 부분에 대해서는 히라가나 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2-5. 동사의 경우

(38) 瀧い男とは、ハゲる一步手前の男じゃん。(1994. p100)

(39)今日はヒマ。店長はダべる。(2004. p43)

예문(38)(39)는 동사의 원형의 예인데, 예문(32)~(34)의 형용사의 원형의 경우와는 달리, 어간 부분만을 가타카나 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예문의 가타카나 표기를 통해서 보면, 동사와 형용사의 사이에는 가타카나 표기 규칙이 달리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활용되는 경우의 동사의 예문을 보기로 한다.

(40)しばらくサボっていた筋トレは、きつい。(1994. p157)

(41)まず、收れん化粧水はケチってはダメ!(2004. p228)

(42)彼のお母さんや妹ばかりにウケて、どーする!(1994. p96)

위의 예문(40)~(42)의 경우 역시, 예문(35)~(37)의 형용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어간만을 가타카나로 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을 보기로 한다.

(43)もちろん、なかにはシマツタと思うことも多々あるでしょう。(2004. p266)

예문(43)의 경우에는 예문(40)~(42)와 달리 어간과 어미의 활용된 부분까지 가타카나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예문(40)~(42)와 같은 표기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문(43)와 같은 표기는 그다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3. 漢語

(44) ケンカした次の日は最悪。(1994. p80)

(45) ケンカと浮氣のない戀愛も、非常に得難いものなのだ。(2004. p98)

위의 예문(44)(45)의 漢語「ケンカ」는 가타카나 표기를 통한 시각적 효과보다는 한자표기(喧嘩) 자체가 독자층에게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가타카나 표기를 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가타카나를 통해서 시각적 효과를 얻고자 의도했다면, 「最悪」「浮氣」「戀愛」도

가타카나 표기를 해야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46) おフロ上がりにヒフをもんだり、マッサージするのもいいんだよ。(1994. p207)

예문(46)의 경우에는 한자표기(皮膚)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인데도 불구하고, 가타카나 표기한 것은 가타카나를 통해 시각적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점과 독자층에게는 한자표기「皮膚」가 어려운 한자라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해석이 합당하다고 전제했을 경우, 예문(29)~(30)의 경우와 공통되며 이들 사이에는 固有語의 가타카나 표기와 漢語의 가타카나 표기라는 점에서 대비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47) 本當にカンタンで最高!! ゼットイオススメ。(2004. p248)

(48) 春一番カンタン輕量大作戦! (2004. p301)

예문(47)(48)는 「最高」「一番」「輕量」와 마찬가지로 「カンタン」도 「簡單」이라고 한자로 표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가타카나 표기한 것은 역시 시각적 강조효과를 의도했기 때문에 나타난 표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 2-4. 混種語

(49) フレアより形は合う。が、さわやかなんだけど、董さんにはイマイチ。(1994. p41)

(50) なぜだかチャンスを逃しがち、結婚運イマイチの相手とは!?(2004. p213)

(51) 甘えん坊で、信頼度はイマイチ。(2004. p216)

혼종어는 단어를 이루고 있는 구성성분이 각기 서로 다른 語種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는데, 예(49)~(50)의 「イマイチ」는 固有語 成分「いま(今)」와 漢語 成分「いち(一)」가 결합한 혼종어의 예이다.

(52) ジーンズをやわらかくしたのはゼロヨンです。

(53) またカラオケに行こうよ。(2004. p89)

예문(52)의 「ゼロヨン」은 외래어 성분「zero(0)」와 고유어 성분「よん(4)」이 결합한 예이며, 예문(53)의 「カラオケ」는 고유어 성분「から(空)」와 외래어 성분「orche(stra)」가 결합한 예이다.

## 2-5. 語種別 分布

지금까지 살펴온 『non·no』에 나타나는 가타카나 표기어의 語種別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구 분	1994년 발행		2004년 발행	
	언어수	분포율(%)	언어수	분포율(%)
외래어	8,929	74.3	9,959	72.1
고유어	2,320	19.3	2,917	21.1
한 어	721	6.0	884	6.4
혼종어	48	0.4	54	0.4
계	12,018	100.0	13,814	100.0

『non·no』잡지의 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하는 외래어 외에 고유어나 한자어에도 가타카나 사용이 상당히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1994년 발행분과 2004년 발행분 사이에 어종별 분포율에 있어서는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사용회수에 있어서는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 청소년층의 문자표기 성향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외래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종에 있어서도 가타카나 표기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3. 외래어의 가타카나 표기에 대한 품사상의 특징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외래어의 가타카나 표기에 있어서는 품사에 따라 몇 가지 규칙성이 존재하는 바, 간략히 정리해보기로 한다.

### 3-1. 動詞化

동사의 경우에는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될 수 있다.

#### 3-1-1. 「-する」의 첨가

- (54) ポッコリのお腹をカバーする! (1994. p64)
- (55) 自分でパフォーマンスする。(1994. p87)
- (56) 運轉をストップすると心拍数はどんどん落ちてくる。(2004. p152)

외래어의 가장 일반적인 동사화는 「-する」를 첨가하는 방법이다. 예문(54)~(56)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명사 형태의 단어에 「-する」를 붙임으로서 동사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漢語+する」의 경우와도 공통되는 점이다.<sup>12)</sup>

### 3-1-2. 「-できる」의 첨가

- (57) バイト情報誌でも募集はチェックできる。(1994. p90)
- (58) きちんと風にもコーディネートできるよ。(2004. p24)
- (59) 思い切りリラックスできるシルエットなので、南の島でのバカンスにもおすすめ。(2004. p159)

예문(57)~(59)의 경우는 「-できる」를 첨가한 것으로 「-する」를 첨가하는 예문(54)~(56)의 용법의 연장선상에 있는 예인 것이다.

### 3-1-3. 「-る」의 첨가

- (60) いつもミスる人が周りにいる。(1994. p100)
- (61) こちらの方がダブるよ。(1994. p96)
- (62) トラブる解決方法はこれ! (2004. p43)

「-する」「-できる」를 첨가하는 것 외에 예문(60)과 같이 「-る」를 첨가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하여 예문(61)(62)의 경우는 원어(double・trouble)가 외래어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末音が 동사의 어미 형태인 「る」일 경우에 해당하는 예이다.

## 3-2. 形容動詞化

- (63) これはラフなアンコンタイプ。(1994. p17)
- (64) 色はシンプルなモノトーン。(1994. p19)
- (65) モチーフはキュートなぶどう。(2004. p10)

12) 注11을 참조할 것.

(66) こんなにカラフルな色はすてき! (2004. p132)

예문(63)~(66)은 외래어에 형용동사의 어미 「-な」를 붙여서 쓰이는 경우의 예이다. 이것 역시 漢語를 어간으로 하는 형용동사「有名な」「便利な」「健康な」와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

### 3-3. 副詞化

(67) 上半身をコンパクトにまとめると女らしく見える。(1994. p12)

(68) クールに見えるために、(1994. p37)

(69) ドライにしておこう! (2004. p88)

예문(67)~(69)는 예문(63)~(66)에서의 형용동사의 어미「な」를 「に」로 바꾸어 부사화한 예이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서 외래어의 일본어로의 정착과정도 漢語의 정착과정과 상당히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나오며

이상, 본 연구에서는 여성 주간지 『non・no』를 통해서 현대 일본 청소년의 가타카나 사용의 실상을 살펴보고, 이러한 가타카나 사용이 어떠한 경우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특히, 외래어 이외의 가타카나 사용이 이루어진 경우를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1) 구어체적인 표현을 강조하고 싶은 경우
- (2) 감정의 정도를 나타내고자 하는 경우
- (3) 속어나 은어의 뉘앙스를 완화시켜 표현하고자 하는 경우
- (4) 어려운 한자표기를 대신하여 표기하고자 하는 경우
- (5) 자주 사용되어 이미 가타카나 표기가 일반화한 경우

앞으로도 일본인의 가타카나 사용은 더욱 확대되고 다양화해갈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금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 【参考文献】

- ・相澤尚美(1985)「現代におけるカタカナの使用状況 -『フォーカス』を資料として-」『日本文学ノート』第20号。pp.103-116
- ・荒川清秀(1986)「-性・-式・-風」『日本語学』3月号、明治書院。pp.85-91
- ・影山太郎(1993)『文法と語構成』ひつじ書房。pp.255-321
- ・佐竹秀雄(1989)「若者の文章とカタカナ効果」『日本語学』1月号、pp.60-67
- ・土屋信一(1977)「現代新聞の片仮名表記」『電子計算機による国語研究VIII』国立国語研究所研究報告。p.112
- ・野村雅昭(1981)「週刊誌のカタカナ表記語」『馬淵和夫博士退官記念 国語学論集』大修館書店 pp.847-866
- ・原 由起子(1986)「-的」『日本語学』3月号、明治書院。pp.73-80

K C I

要 旨

I've looked over using Katakana in modern Japanese. As a result, I can summarize the role and function of Katakana in inscription of Japanese as following.

1. By giving a point, the word has an effect that can emphasize meaning and image. Inscription of Katakana expresses not only emphasizing specific words but also pointing accurate areas by exposing visual image.
2. In contrast with an emphasizing effect, I identified Katakana as a role which alleviates minus image of meaning of meaning and its image in Slang.
3. If someone wish to express either positive emotion or negative one, and when someone uses means of evaluation.
4. Katakana which already officialized is used to change difficult chinese characters by Japanese.

キーワード：カタカナ表記、語種、外來語、漢語、混種語、品詞性

투 고 : 2005. 5. 31
1차 심사 : 2005. 6. 11
2차 심사 : 2005. 7. 2

1. 제1필자 : 李京珪  
 住 所 : (614-80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3동 300-13 경기 L&P VILLE 1502호  
 電 話 : 011-9032-5120  
 e-mail : lk5120@deu.ac.kr
  
2. 공동연구자 : 徐珍榮  
 住 所 : (614-7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3동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電 話 : 016-559-6531  
 e-mail : aphaia@hanmail.net